‘제2의 월세’ 관리비… 아파트 주민들 ‘허리 휜다’

인건비·전기료·수선충당금 등 상승에 부담 늘어
광주 평균 20만원…냉방비 추가시 30만원 웃돌아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무섭습니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서민 가계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평균 관리비는 전용면적 84~85㎡ 기준 21만~28만원 수준까지 형성된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전년 동월 대비 5~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관리비가 30만원 안팎까지 오르는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 광주 북구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전용 85㎡ 기준 평균 관리비는 약 24만8000원이었으나, 냉방 사용이 집중된 8월에는 25만3000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같은 단지에서도 계절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수만원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의 한 중형 아파트 역시 전용 85㎡ 기준 평균 관리비가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와 준공연도, 난방 방식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월 20만원 이상인 단지가 일반화되는 추세다.

전남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21만2000만원이었던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올해 22만3000원~23만4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이다.

관리비 항목을 보면 경비비와 청소비, 일반관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시설 보수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더해진다.

여기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외벽 보수 등 대규모 장기수선 공사가 이어지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리인력 인건비 상승, 전기료 및 각종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리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만원 늘어난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기요금과 각종 공용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 관리비 걱정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관리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지역 주택관리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상승은 단순히 전기료 때문만이 아니다. 경비·미화 인력의 인건비 상승,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날수록 관리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83’… 반등에도 침체 늪 지속

광주상의,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기업 10곳 중 7곳 경영계획 수정…납품단가 인상 확산
자동차·부품 122→84 급락…“금융 지원 등 대응 시급”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3분기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는 8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보다 8p 상승한 수치지만 기준치인 100에는 크게 못 미쳐 기업들이 여전히 경기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상의는 일부 업종의 여름철 성수기 진입과 신규 수주 확대 등이 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고금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을 압박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동 분쟁 이후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7.9%가 ‘변동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 제조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기존 계획을 수정한 셈이다.

경영계획을 변경한 기업들은 가장 많이 ‘가격·납품단가 인상’(61.8%)을 선택했다.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48.7%), 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43.4%), 생산량·가동률 조정(40.8%), 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3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 상승 부담을 기업 내부에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경영 항목별 전망도 대부분 부진했다.

매출액 전망은 90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고, 영업이익은 75에서 74로 소폭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89에서 94로, 자금사정은 64에서 72로 각각 개선됐지만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악화됐고, 자금사정 역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지역 제조업을 견인했던 자동차·부품 업종은 전망지수가 122에서 84로 38p 급락하며 악화 국면으로 돌아섰다. 기계·장비도 82에서 75로 하락했다.

반면 전자제품·통신은 50에서 75로, 화학·고무·플라스틱은 0에서 83으로, 식음료는 40에서 57로 각각 상승하며 일부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모두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철강·금속은 20에서 125로 크게 반등했지만, 전 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존 거래처의 안정적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업종 전반의 회복세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전망지수가 67에서 82로 상승한 반면, 대·중견기업은 150에서 92로 무려 58p 급락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대·중견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규모별로도 수출기업은 64에서 73으로, 내수기업은 78에서 86으로 각각 상승했지만 모두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수출·내수기업 모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크록스 x 레고 콜라보 ‘눈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크록스와 레고의 콜라보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콜라보 상품은 레고 로고가 각인된 스터드 디테일이 적용됐으며 브릭 형태를 연상시키는 아웃솔로 위트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직원이 ‘크록스’와 ‘레고’가 콜라보 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광양 3분기 기업경기 ‘흐림’
BSI 68.1… 전국 평균 밑돌아

얼어붙은 광양지역 기업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100여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지수(BSI)는 68.1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62.2)보다는 5.9p가 증가했지만 전국 79.6, 전남 87.2에 크게 못 미쳐 경기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기업의 10.6%는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응답했지만 42.6%는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 46.8%는 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경영환경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서 50.9%는 ‘다소 기대’, 40.4%는 ‘별로 기대하지 않음’, 4.4%는 ‘기대하지 않음’, 4.3%는 ‘기대’로 응답했다.

기대 이유로는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33.3%),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지방세 감면,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27.8%), ‘기업 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22.2%), ‘교통 물류 등 입지여건 개선 기대’(8.3%), ‘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거점 조성 기대’(5.6%) 등을 들었다.

반면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 내수·소비 회복 더딤’이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금리 우려 등 비용·자금 부담’(21.8%),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18.9%), ‘규제제도 불확실성 부담’(6.3%) 등을 꼽았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한전, 낙뢰 대응 강화…송전선로 고장 65% 감소

반도체 공장·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한국전력이 여름철 집중되는 낙뢰로부터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송전선로 낙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낙뢰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이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함께 증가하는 낙뢰에 대비해 전국 주요 송전선로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전력설비 예방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는 순간적인 전압강하나 짧은 정전만으로도 생산 차질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고품질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송전철탑에 송전선로용 피뢰기를 설치해왔다. 특히 한전은 낙뢰 발생이 잦거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피뢰기 설치를 집중 확대했다. 현재 154kV 송전선로의 피뢰기 설치율은 9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투자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피뢰기 설치가 본격 확대된 이후 송전선로의 연평균 낙뢰 고장은 기존 249건에서 88건으로 감소해 약 65%의 저감 효과를 거뒀다.

한전은 앞으로도 여름철 낙뢰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뢰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실시간 설비 감시와 예방점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맞춤형 AI 지원… 소상공인 혁신 이끈다

소진공, 제품·서비스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맞춤형 AI 지원으로 소상공인 혁신 기반 조성을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30일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의 날 행사는 현재 모집 중인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권역별 주관기관과 멘토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권역별 주관기관, 멘토기업 등 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 구축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AI 활용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수행 방향 안내, 사업 추진체계 설명, 권역별 주관기관 소개, 주관기관-멘토기업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다.

또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소상공인 사례와 멘토기업의 지원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주관기관과 멘토기업은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소상공인 매칭부터 멘토링,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 중이다.

AI 활용모델 구축 대상 1000개사를 우선 선정한 뒤 평가를 거쳐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대상 680개사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AI 멘토기업과 함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방안을 진단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후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향후 참여 소상공인 모집 이후에는 수요와 업종 특성, AI 활용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멘토기업 간 맞춤형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은행, ‘햇살론특례대출 캐시백’ 이벤트

원금 연 0.5%p 최초 3개월분 지급…내달 30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오는 8월 30일까지 두 달간 ‘햇살론특례대출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채널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된다.

이벤트 혜택은 매월 이자산정기준 원금의 연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3개월분 산정해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대출 상환계좌가 광주은행 계좌인 고객 중 지급일 기준 연체 기록 없이 정상 계좌를 유지하고,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일괄 지급된다.

광주은행 햇살론특례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증대출 상품이다. 비대면채널인 스마트뱅킹과 모바일 웹뱅킹은 물론 주요 금리비교 플랫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광주Wa뱅크, 광주은행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서민·취약계층 고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